더민주 국회의장 후보군 5명…문희상·정세균 양강구도

국회 원구성 타결…의장단 후보군

부의장 새누리·국민의당 1명씩
與 부의장 심재철·이군현 물망
野 부의장 박주선·조배숙 경쟁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임기 개시 열흘간 공회전을 거듭해온 제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은 8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양보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따면서 곧바로 마무리됐다.

애초 제1당인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기로 의견이 모이면서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새누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진통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 당은 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협상의 숨통을 텄다. 이후 여야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선, 여야 의석수를 토대로 한 상임위원장직 배분 원칙에 따라 새누리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19대 국회 10개에서 이번엔 8개로 줄어들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8개와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양보한 대신 운영·법제사법위를 가져갔다. 또 예결·기재·정무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중 기재·정무위원장은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더민주가 차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인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2개를 차지, 체면을 지켰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부의장 자리에 누가 오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까지 더민주 내에서 차기 의장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인사는 문희상·이석현·정세균(이상 6선·가나다순) 박병석·원혜영(이상 5선) 의원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원 의원은 문 의원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경선에서 맞붙는 상황까지는 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4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이 예고된 가운데 더민주는 이에 앞서 의총을 열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추천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더민주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당내 경선이 이뤄졌으며, 당시 임채정 전 의원이 김덕규 전 의원에 단 2표 차이로 앞서며 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현재로서는 범친노로 분류되는 문 의원과 정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게 당내 대체적 관측이나, 이 의원과 박 의원도 뒷심을 발휘할 수 있어 안갯속 판세를 형성하고 있다.

두 자리의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가져가기로 한 상태다.

새누리당에서는 부의장 후보군으로 심재철·이군현 김정훈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4선의 박주선·조배숙 의원이 경쟁 중이다.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광주·전남 출신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박 의원은 자신이 3당체제에서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상력을 발휘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당내 4선 당선자 중 유일한 여성으로 부의장이 되면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국회의원들 '1호 법안' 관심사·지역현안 총망라

지역 평등·청년대책·법인세·전관예우…'8인 8색'

20대 국회에 등원한 광주 의원들의 1호 법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냈다.

지역평등, 청년대책, 세금, 법조비리, 5·18 등 다양한 관심사와 지역 현안이 묻어 있다.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천정배(서구을) 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인 '낙하산 금지법' 발의에 참여한다.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사임하고서 3년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으로 갈 수 없게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김동철(광산갑) 의원은 지난 2일 1호 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20%인 법인세율을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환원한다는 내용이다. 박주선(동남을)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총선 당시 공약했던 입법계획의 하나로 지방인재 채용비율 상향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장병완(동남갑) 의원의 첫 법안은 '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주요 내용이다.

변호사 출신인 권은희(광산을) 의원은 전공을 살려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수걸이 법안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선다.

초선 의원들도 국회 데뷔작이 될 법안 선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경진(북구갑) 의원은 이른바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수를 늘리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전문가 검토,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송기석(서구갑) 의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최경환(북구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심을 뒀다.

5·18을 비하·왜곡하는 데 대한 벌칙조항 등을 추가한다는 구상이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를 대표로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개인 발의로 이어질지는 유동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성 혐오 폭력…다프네의 비명 소리 들리는 듯

김은영의 '그림 생각'

(157) 추한 욕망

베르니니 작 '아폴로와 다프네'

요즘은 세상 뉴스를 접하는 게 두렵다. 추한 욕망으로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폭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두려움을 넘어 증오를 느끼게 한다.

서양미술에서 화가들은,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구약성서 속 '수산나와 두 노인' 등 역사나 신화 속 스캔들이나 사건을 화면에 담아 후세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인권의 침해를 경고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 인권의 존엄성을 예찬한 작품들도 있어 새삼 들춰보게 한다.

현재의 로마를 완성한 건축가이자 조각가로 알려진 지안 로렌초 베르니니(1598~1680)의 '아폴로와 다프네'도 신화 속 한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태양의 신인 아폴로는 에로스의 앙갚음으로 맞은 황금 화살로 인해 다프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물의 님프 다프네는 증오의 화살을 맞아 아폴로를 보면 무감각하고 기겁하며 달아나게 되는 엇갈린 운명이 된다. 아폴로가 다프네를 잡은 순간 사력을 다해 달아나면서 하늘을 향해 자라는 나무로 변하고 금방이라도 비명이 들리는 듯 다프네의 벌어진 입이 사실적이다.

같은 시기에 베르니니는 '다비드'와 '포르세르피나의 겁탈'을 제작했는데, 이 세 작품은 조각의 혁명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다. 특히 '아폴로와 다프네'가 완성되자 당시 로마인들은 마치 기적을 대하듯 이 작품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거리를 지나는 작가를 보고서는 '아폴로와 다프네'를 만든 베르니니라며 환대했다고 한다.

미켈란젤로를 숭배했던 베르니니는 '신의 모습을 한 인간'을 만들고자 했던 미켈란젤로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을 표현했다. 그 어떤 조각가들보다 단단한 돌을 밀가루 반죽을 다루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베르니니는 조각 작업에 연출가처럼 극적 효과를 더해 최고의 행위예술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벼건조기가 작동되는 정미소 안의 컨테이너 박스. 이 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벼건조기로 인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냉방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지만,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나던 집이었습니다.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겨진 수천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 만삭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밭에 나갑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와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할 뿐입니다.

외부에 임시로 판넬을 덧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여덟 가족은 살기 위해, 외삼촌네 집 마당에 임시 판넬로 5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넬 집은 집이라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삐죽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가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축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께 입주식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척척 빨래를 개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임당'.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어른아이입니다.

◀후원및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찍어주세요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